

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5.7.18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I. 국내

□ 산업계

- "GS에너지, SMR 전담 조직 개편"...미래 전력 주도권 노린다 ('25.7.16. 파이낸셜뉴스)
 - GS에너지는 소형모듈원전(SMR)과 수소 사업을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삼으며, SMR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해 사업 확대에 나섬
 - 국내외 SMR 및 수소 인프라 투자와 함께 민간 원전 운영·전력판매 확대를 위한 법적 논의도 병행하고 있음
- 롯데정밀화학, 암모니아 사업으로 업황 타개한다('25.7.17. 오늘경제)
 - 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4년 1분기 매출 4,456억원, 영업이익 188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11.6%, 74.1% 증가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됨
 - 업황 악화 속에서도 암모니아 부문이 실적 회복과 수익성 방어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, 롯데정밀화학의 경쟁력 강화와 재무 안정성 개선에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

□ 지자체

- "석유화학 도시에서 수소허브로"... 울산, 산업 대전환 선언 ('25.7.17. 이투데이)
 - 국내 석유화학기업 카프로가 본사를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전하고, 울산 온산국가산단에 국내 최대 수소출하센터를 준공하면서 수소 기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함
 - 울산시와 카프로는 본사 이전을 기념해 '지속가능 산업전환 공동비전 선언문'을 채택하며, 디지털 전환·미래에너지 협력, 일자리 창출, ESG 경영 강화 등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에 협력하기로 함

□ 기관

- 가스기술공사, 청년 창업과 동행... 수소·AI 융합 현장 개방 ('25.7.17. 투데이에너지)
 -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5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행사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본사 수소DX센터의 현장견학을 지원함
 - 이번 견학은 학생들에게 수소산업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·진로 탐색과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임
- 강원테크노파크, 삼척시 수소기업 대상 혁신 역량강화 교육 실시 ('25.7.16. 전자신문)
 - 강원테크노파크는 16일 삼척시 수소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
 - 이번 교육은 관내 수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과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됨

II. 해외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○ 인도 신재생에너지부(MNRE), 그린수소 R&D 지원 2차 공모 개시(FuelCellsWorks, 25.7.16)

- 인도 신재생에너지부(MNRE)는 국가 그린수소 미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 과제의 2차 공모를 개시함(접수마감: '25.8.21)
- 금번 공모는 그린수소 생산·저장·운송·활용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, 총 40억 루피(약 4,812만 달러) 규모로 진행됨
- 주요 과제는 ▲전극·막 소재 등 저비용 수소 생산 기술, ▲고효율 수소 저장·운송(압축·파이프라인·액상 유기수소운반체 등), ▲수소 충전소 및 수소 기반 전력시스템 등 활용 기술임
- 기술성숙도(TRL)*는 초기 4 이상에서 출발하여, 최종적으로 7 이상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며, 산학협력을 통한 과제 수행을 권장함
 - * 기술성숙도(TRL, Technology Readiness Level): 기술의 상용화 준비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로 1~9단계로 구분
- 학계·공공기관에는 최대 100%, 민간기업에는 최대 80%의 과제비 지원이 가능하며,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산업계의 현금·현물 기여가 필수임
- 인도 정부는 이번 R&D 공모를 통해 자국의 수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을 기대함
- 인도 정부는 특히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모듈형 수소 개질기술 개발과 무인항공기(UAV)에 적용 가능한 수소 기반 동력 시스템 개발을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함
- 과제 제안 시 구체적인 목표 성과물과 수행 일정, 국제적 기술 벤치마크와의 비교·평가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,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

□ 글로벌 산업 동향

○ 독일, 중국 간접 지분 우려로 Snam-OGE 인수 거래 제동 가능성 제기(FuelCellsWorks, 25.7.16)

-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(BMWK)는 이탈리아 Snam*이 독일 가스망 운영사 OGE**의 지분 24.99%를 약 9억2천만 유로(약 10.8억 달러)에 인수하려는 계획에 대해 외국인 투자 심사를 진행 중임
 - * OGE(Open Grid Europe): 독일 에센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규모의 가스 송유관 운영사로, 총 12,000km 이상의 가스 송유관을 운영하고 독일과 7개 인접국을 연결하는 17개 지점의 교차점을 보유한 유럽 에너지 물류의 핵심 기업
 - ** Snam(Società Nazionale Metanodotti): 이탈리아 최대의 천연가스 인프라 운영사로, 유럽 전역의 가스 저장·운송망을 보유하며 최근 수소 및 탈탄소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인 에너지 기업
- 이번 거래는 Snam과 아부다비투자청 산하 Infinity Investments*의 공동 인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, Snam에 대해 중국 국영 전력회사가 간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안보 우려가 제기됨
 - * Infinity Investments: 아부다비투자청(ADIA) 산하의 투자 운용사로, 에너지·인프라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동투자 프로젝트 수행
- 특히 OGE는 독일의 수소 핵심망 구축 계획의 중심축으로, 이번 인수는 수소 인프라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됨
- 독일 정부는 최근 비EU 국가의 전략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, 특히 중국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안보와 사이버 회복력 확보 차원에서 더욱 엄격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
- 정부 관계자는 “수소는 앞으로 천연가스보다 더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될 것”이라며, 이번 사례가 향후 EU 차원의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